

# 장성군 '발상의 전환'



장성 영천리 '장성공원' 내 조성된 '경관폭포'에서 시원한 폭포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장성군 제공>

### 행안부 정비사업 선정 장성공원 내 조성 선비정신·황룡강 상징...새 랜드마크 기대

장성군이 시가지 내 유일 공원인 장성공원에 경관폭포를 조성했다.

특히 이 곳은 급격한 경사면으로 인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장성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를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경관폭포로 탈바꿈시켰다.

이 폭포는 마치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연상시키는 형상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장성읍 영천리 '장성공원' 내 급경사지에 추진한 '경관폭포' 조성 사업을 마치고 최근 준공했다.

1997년 공원으로 지정된 장성공원은 4만3862㎡(1만3291평) 면적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산뽕나무 등 나무 500여 그루가 우거진 울창한 숲과 운동시설, 정자,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3·1만세운동 열사 장성의적비와 6·25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탑 주변에서는 매년 각종 기념식이 열리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로도 꼽힌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공원 서쪽 언덕 일부가 지난 2015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가 시급했었다.

급경사지는 장성군의 노력 끝에 이듬해인 2016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비가 이뤄져 최근 공사가 완료됐다.

장성군은 420m 높이의 급경사 구간에 식생블록을 쌓아 붕괴 위험을 차단하고 공원 앞 경사면에는 가로 24m·세로 13m 규모의 경관폭포를 조성했다.

선비의 절개와 기상을 뜻하는 주상절리 형상에 황룡강의 맑은 정기를 상징하는 경관폭포는 장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경관폭포에는 '학문은 장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전통과 열로우스티 장성의 발원지인 황룡강의 물줄기가 형상화돼 있다"며 "지역민의 휴식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명소가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붕괴위험지역, '경관폭포' 됐다

# 사과야? 수박이야? 화순 깎아먹는 '애플수박' 출하

수박보다 작고 껍질 얇아 1인 가구에 인기...1통 4000~6000원선

"사과처럼 깎아먹는 '애플수박' 맛보세요." 화순군은 특새 소득작목인 '애플수박' (소과종)을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수박은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1~2kg 정도의 크기로 일반 수박 크기의 5분의 1 수준이다.

1인 가구에서도 부담 없이 한 번에 먹을 수 있으며, 특히 일반 수박과 비교해 10분의 1 정도로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다.

화순 도곡면에서 출하한 애플수박은 아시아계열 국내 우량 품종으로 12~13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를 유지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통당 4000~6000원에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광주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농가 소득은 일반 수박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경쟁력 있는 특새작목을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읍면 1특새작목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수박은 도곡면의 특새작목으로 4개 농가가 시설하우스 0.6ha에서 재배 중이다.

화순군은 애플수박 모종, 소포장 박스 등을 공급하고 정기적인 현장 기술지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 도곡면 농장에서 특새 소득작목인 '애플수박'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함평경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앞장

### 함평초에 야광 가방뱃개 전달

함평경찰은 지난 10일 녹색어머니 회장단과 함께 함평초등학교를 방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 가방뱃개를 전달했다. <사진>

함평경찰은 지역 11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 154명 전체에 야광 가방뱃개와 공책 등 학용품을 제공했다. 또 올해 새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박종열 함평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주변 도로시설물 개선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혁 기자 hwang@kwangju.co.kr



## 농촌체험휴양마을·민박·관광농원 등 251곳

### 담양군, 여름철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

담양군은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역내 농촌관광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섰다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정기점검 실시 여부, 물놀이 시설 점검 및 비상시 대피경로 게시 등 안전관리 체계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등 화재 안전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 관리 ▲건물 가스전기, 난방시설, 체험 관련 안전장비 정기 점검 여부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여부, 손 소독제 비치, 방역 소독 등 대응상황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농어촌민박 234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 관광농원 6개소 등 총 251개소가 대상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화순 군민의 상' 후보자 31일까지 접수

화순군은 '화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시작해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화순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발전, 효행, 교육·문화·체육, 새일꾼상 등 4개 부문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자는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화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거나 문화 예술 발달, 군민 화합, 미풍양속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모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다.

오는 31일까지 군의회 의장, 읍·면장,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는다. 추천된 후보자들을 현지 조사하고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지역 인사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화순군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